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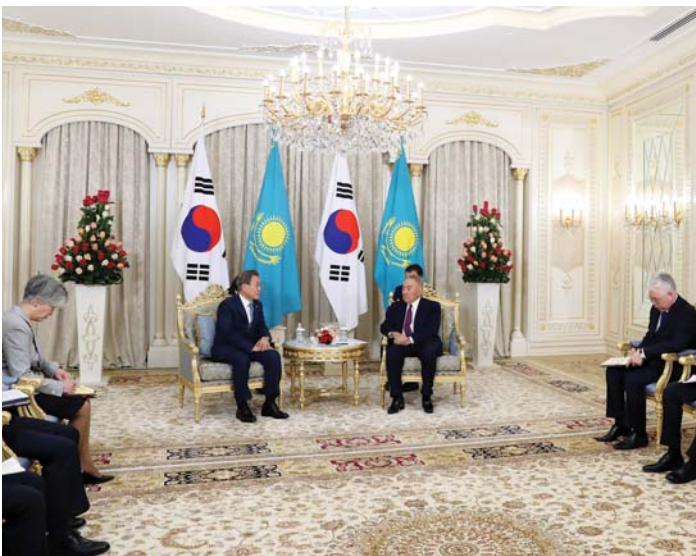
국정뉴스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식

“천천히 오는 분들 기다려야” 北 대화 복귀 촉구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행사가 4월 27일 저녁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개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 축사를 통해 “때로는 천천히 오는 분들을 기다려야 한다”며 “때로는 만나게 되는 난관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함께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날 저녁 판문점 남측 지역에선 작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만났던 군사분계선(MDL)과 도보다리 등에서 6차례 연주회가 열렸다. 통일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공동 주최한 이날 기념식에는 서울과 경기도 주민 200여 명 등 총 410여 명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확고한 지지 받아내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6~23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3개국을 방문했다. 7박 8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순방에서 문 대통령은 신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130억 달러에 달하는 24개 프로젝트의 수주를 지원하고, 3개국 정상들로부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받는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문 대통령은 21일 카자흐스탄 누르술탄 국제공항에서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식을 주관했다. 계봉우, 황운정 두 지사 부부 유해는 22일 대통령 전용기로 운구돼 서울과 대전현충원에 각각 안장됐다.

주거

한국자유총연맹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72
☎ (070)7122-8057

◆시·도지부 연락처

- 서울 (02) 849-7871
- 부산 (051) 808-7960
- 대구 (053) 621-9880
- 인천 (032) 868-0113
- 광주 (062) 672-5004
- 대전 (042) 242-7601
- 울산 (052) 276-4400
- 세종 (044) 865-4522
- 경기 (031) 235-6166
- 강원 (033) 254-6670
- 충북 (043) 253-7770
- 충남 (041) 881-6045
- 전북 (063) 252-1797
- 전남 (062) 654-2340
- 경북 (054) 973-6312
- 경남 (055) 282-2332
- 제주 (064) 751-0191

자유칼럼

한미동맹 가치와 역할 명확히 인식해야



전인범 |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 전 육군 특전사령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가보면 많은 기념비와 공원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념비와 공원은 대부분 미국이 건국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핵심 가치를 세우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쟁취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억하기 위한 것들이다.

기념비들 가운데는 우리나라와 연관이 있는 한국전쟁 참전비도 있다. 이 기념비에는 19명의 미군 장병의 모습이 조각으로 만들어져 있다. 14명은 육군, 3명은 해병대 그리고 해군과 공군이 각각 1명이다. 인종별로도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다. 백인이 12명, 흑인이 3명, 히스패닉 2명, 그리고 동양, 원주민(인디언)이 각각 1명이다.

여기에는 “Our nation honors her sons and daughters who answered the call to defend a country they never knew and a people they never met : 우리 조국(미국)은 알지도 못하는 나라와 만나보지도 못

파병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희생과 도움으로 우리나라는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다. 그들 참전용사는 국가의 부름에 응한 것이지만 우리는 이들 미국의 보통 사람들에게 그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미관계에서 아쉬울 때마다 혈맹으로 맺어진 한미동맹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하지만 막상 한미동맹의 발전

과는 다르다. 다만 이 동맹이 우리의 국가이익과 국가안보에 유리한 건지 불리한 것인지만 따져보면 금방 답이 나온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 그 자체와 6·25 전쟁 때 한국에 파병되었던 미국의 보통 사람들의 아들과 딸들을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시간을 훌쩍 건너뛰어 생각해 보자. 지금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대부분은 국가로부터 명령을 받고 온 보통 사람들이다. 이 땅에 쫓든 싫든 명령을 받고 온 미군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창하게 국가이익이나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거론할 필요도 없다. 그저 같은 보통 사람으로서 인간적인 친밀감을 주고 느끼도록 해주면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이면서도 기본이 되는 ‘관계 형성’이다.

동맹의 유지와 발전은 멀리 있는 거창한 게 아니다. 인간적인 동질감과 친밀감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동맹의 유지와 발전은 일상적인 관심에서 비롯돼
국가의 부름을 받은 미국 ‘보통사람’들의 고마움 잊지 말아야

한 사람들을 보호하라는 나라의 부름에 응답한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존경(기억)한다”라고 쓰여 있다.

이렇듯 미국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6·25전쟁에 참전한 약 150만 명의 미군 중 약 100만 명 정도가 아직 생존해 있는데, 그중에 한 달에 2000명 정도가 세상을 떠난다. 그들은 물론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전쟁에

과 동맹의 내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한미동맹을 위해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동맹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곧 일상적인 관심으로 이어진다. 관심이라는 것은 맹목적으로 지나치게 좋게 생각하거나 또는 결핍하면 배타적으로 나쁘게 생각하려는 인식